

‘봄날... 꽃길을 산책하다’

문화공간 기린 김경희 개인전

문화공간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에서는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한국화 작품 30여점을 선보이는 김경희 작가의 개인전 ‘봄날...꽃길을 산책하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고희에 즈음한 작가가 지난 예술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집념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오랫동안 가족들을 위한 삶을 살아왔다. 그 기반 위에서 작가는 자신을 위해 시각예술가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미술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하며 최근 10년 동안 작업에 전념해왔다.

군산대학교 미술학과 김정숙 교수는 전시 서문에서 “김경희 작가에게 꽃은 단지 하나의 대상이거나 식물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작가의 내면이 투영된 존재이고 채득(採得)한 미적경지를 실현하는 매개물이자 조형세계를 구현한 수단이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행복’ 연작, ‘출출’ 연작 그리고 산수풍경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 연작들은 주로 화사하고 밝은 꽃 작업이다.

이는 그간 작가가 가정과 가족들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꽃처럼 번성하기를 바랐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출출’ 연작 또한 흥미롭다. 끝없이 피어나는 꽃 속에는 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꽃무더기 속에서 풍요로운 행복의 에너지가 비옥한 토양이 된 듯 그 안에서 상상의 동물인 용, 혹은 호랑이나 말처럼 보이는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



김경희 작 '행복'

그 동물들은 언어로, 개념으로, 이야기로 상상으로 오래 우리 주변에 머물러 왔던 것들로 인간과 특정 연결고리를 갖는 상징들이기도 하다.

행복 연작이 사공간을 가로질렀다면 ‘출출’ 연작에서는 동물들이 등장하여 식물과 동물과 그 경계 너머의 종(種)들까지도 서로 관계 맺게 하는 화폭이 신비롭다.

꽃이 지나는 생명의 에너지는 이처럼 우주 공간을 종합하며 다른 생명체로 이어지는 기상과 역동적 힘을 자아낸다. 특히 김 작가의 행복과 출출 연작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무궁화 이미지는,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차이와 반복을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생성적인 힘과, 재현의 상황을 벗어나는 차이와 반복으로서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변이’를 생각나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 특유의 시각적 메시지를 마음껏 누리며 작품이 내뿜는 풍요롭고 달콤한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가득 담았다.

한편, 김경희 작가는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에서 수학하고 졸업 후에는 동 대학원 조형예술 디자인과에 진학하여 화가로서의 깊이 있는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 ‘행복’ 연작

화사하고 밝은 꽃담아 구성원 번성 염원 반영

▶ ‘출출’ 연작

용·호랑이나 말처럼 보이는 동물들 담아 인간과 연결고리 갖는 상징



‘전주이야기, 설화로 만나다’

시, 11월까지 시청 로비

‘전주책방’ 서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

전주시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남고산 호랑이 바위 전설 등 다양한 전주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는 설화를 통해 아이들이 재밌게 전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시청 로비 ‘전주책방’에서 ‘설화로 만나는 전주이야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인 8월을 제외한 총 28주간 운영, 매주 사전에 신청한 전주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30여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남고산 호랑이 바위 전설 등 다채로운 우리 고장 이야기를 배우고 교사와 함께 설화와 관련된 만들기 활동을 체험하는 등 다양한 책 놀이 활동을 하게 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미래 꿈나무인 아이들에게 설화를 통해 쉽게 전주를 알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책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 전주에 대해 알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어린 화가 육성·지역 예술가 지원에 써주세요’

현대차 전주공장, 미술로 배우는 드림 투게더 협약식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 전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1일 사업 파트너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갤러리 누벨 백 등과 함께 ‘미술로 배우는 Dream Together’ 3기 협약식을 가졌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한국 화단을 이끌어 나갈 어린 화가 육성과 지역 예술가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21일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술로 배우는 드림 투게더(Dream Together)’ 3기 사업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예술가들을 매칭해 서로 윈윈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엄선된 지역 예술가들의 세심한 지도로 미술에 관심이 많은 전북 지역 아동센터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향후 9개월간 조정, 회화, 놀이미술 등 수업을 매월 4차례씩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주공장은 이날 공동 사업자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와 갤러리 누벨 백 등과 함께 ‘미술로 배우는 드림 투게더(Dream Together)’ 3기 협약식을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주공장은 미술교육에 관심 있는 전북지역 아동센터 아동들과 지역 예술가들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회공헌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초록우산과 갤러리 누벨 백은 교육 대상 아동 선발 및 미술교육을 맡을 예술가 선정, 교육 장소 제공 등 사업 실행 전반을 책임지기로 약속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미술에 관심 많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잠재된 재능을 끌어냄으로써 미래의 한국 화단을 이끌어 나갈 어린 화가를 육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경찰, 이운택 전 예술감독 구속영장 신청...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연극인들에게 성폭력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운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 관련 경찰 수사대상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조중훈(50) 극단 번개이 대표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소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성이 있어 중죄에 해당되고 외국 여행이 잦아 도주 우려나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17명이 처벌을 요구한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다. 최근 연극인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으로 봤다. 기간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다. 2013년 성범죄 진고회 폐지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 이후 일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폭행은 상습적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서에 17명의 피해사실을 모두 적시했다. 이 전 감독의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상소 성폭력 경위와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나 이 전 감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발생연습 등 연가지도상 한 행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시스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한 여행도시 NO.1, 완주를 소개합니다.

완주가 좋다 그래서 간다

정청 산수의 빼어난 자연경관 // 명승고찰의 숨겨진 아름다움
비옥한 토양이 안겨주는 최상의 농특산물 // 로컬푸드 1번지다운 안전한 먹거리
완전한 고을! 으뜸도시 완주의 자랑 완주 9경 8품 8미

완주는 힐링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명소!

엄지척! 완주 대표 투어상품~

- ★ 투어코스
 - 삼례문화예술촌 & 비비정
 - 삼례책마을
 - 중식타임
 - 고산자연휴양림 & 고산문화공원
 - 대한민국 슬테마박물관
- ★ 상품소개
 - 역사, 문화, 힐링, 건강만 먹거리 등 완주의 매력을 한번에 만끽할 수 있는 맛 있고 멋 있는 최고의 완주투어코스
 - 맛있는 식사 (건강한 로컬푸드 먹거리) - 새참수레 2호점, 비비정 농가레스토랑
 - 신나는 레저타임 - 투어바이크, 에코어드벤처, 밀리터리파크
- ★ 관광지 소개
 - 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완주 문화예술의 중심 <삼례문화예술촌 & 삼례비비정마을> 책과 카페가 어우러진 책 문화의 새로운 요람 <삼례 책마을 문화센터>
 - 자연 속 치유 공간 <고산자연휴양림&고산문화공원> 온라인 게임 몸으로 체험한다 <밀리터리파크> 자연친화적 가족단위레포츠 <에코어드벤처> 한국의 슬역사가 담긴 <대한민국 슬테마박물관>

9경 8품 8미